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

익산시, 강력한 단속·지원·오염원 제거 정책 추진... 악취·미세먼지 확 줄어

익산시가 추진해 온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올해 분야별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 $\mu\text{g}/\text{m}^3$ 로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5년 이래 47%나 감소했다.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mu\text{g}/\text{m}^3$ 였으며 2019년 31 $\mu\text{g}/\text{m}^3$, 2020년 23 $\mu\text{g}/\text{m}^3$, 지난해 19 $\mu\text{g}/\text{m}^3$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악취 문제도 한층 개선됐다. 지난해 하반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악취 설문조사에서 59% 이상이 과거에 비해 악취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여름철 악취 민원도 2020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총괄하는 전반적인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악취 등 친환경 녹색도시 정책에 대해 87%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답해 환경문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시의 강력한 단속과 지원, 오염원 제거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악취·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악취 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계열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 200여원을 투입해 왕궁 정착농원 축사 매입을 완료한다.

지난해 보릿대 소각 행위 등으로 매캐한 냄새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소각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3990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농폐기물 파쇄 사업과 수거보상금 지급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악취 취약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는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500만 관광객으로 도약한다.

‘익산 방문의 해’ 관광도시 도약

용안생태습지·왕궁보석테마관광지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익산시는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500만 관광객으로 도약한다.

시는 지난 4월 학계, 여행업, 외식업, 숙박업, 전문가 등 관광 분야 각계각층이 참가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익산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다짐했다.

민관협의회는 시와 긴밀히 협의해 문화관광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시책 제안 시민참여 유도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시는 500만 관광객으로의 도약을 위해 익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 기반을 활용해 백제고도, 서동추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어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메

카로 부상한 교도소 세트장, 숲과 자연이 공존하는 용안생태습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통해 관광객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시는 방문의 해 기간 동안 가족소풍, 소규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등 관광객들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도시 익산으로 대도약이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시대에 변화한 관광객들의 수요에 응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익산, 즐길 수 있는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선제적 지원'

공공 배달앱 단점 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익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선제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중계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될 지원대상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3천5백여 곳으로 이중 민간 배달앱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다.

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민간배달

앱에 대한 중계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의 수익 안정화와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구축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배달 앱을 출시했다가 저조한 이용률 속에 서비스를 멈추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출시 초기 활성화되었다가 현재는 민간 배달앱에 밀려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

실제 코로나19 비대면 수요를 타고 급성장한 민간 배달앱 3곳이 90%의 시장 점유율의 차지하고 있어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전북도는 지속적인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이유로 들어 공영배달앱 구축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달중계수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해 중계수수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가맹점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홍보나 마케팅에 앞선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통한 실질적 경영안정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20일까지 영업제한시간 오후 11시·집회는 현행 유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군산시는 정부가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도 지역·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느껴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영업제한 시간을 23시로 1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 영업제한 운영시간만 1·2·3그룹 및 기타그룹 모두 오후 11

시 제한으로 변경된다.

행사·집회도 기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타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최근 군산에 3월 들어 일일 800명대를 넘는 등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은 5일과 선거일인 9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투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정규직 일자리 지원 참여 희망 청년 상시모집

군산시는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으로 지역 특화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참여 청년들은 군산시 소재 중견·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관련 연구 직무, 마케팅·생산물리·기획 등의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

시는 4월부터 모집 정원(130명)이 마감될 때까지 참여 청년을 상시모집한다. 대상은 군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산시로 전입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제7기 의원 모집

군산시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이끌어 갈 제7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2세~19세 모든 어린이·청소년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발대식 및 권리교육,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포토포이스 활동, ▲정책제안, ▲조례개정 등이다.

관심 있는 어린이·청소년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서류 작성 후, 아동청소년과(7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hyh0654@kocakr)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454-4164)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설 아동청소년과장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아동·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제 15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전문자격증반 입학식과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제15기 군산시농업인대학 입학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입학식에는 학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농업인대학 총동창회 임원들과 농업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군산시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전문자격증반 교육과정은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유기농업기능사반과 양봉관리전문가양성을 위한 양봉관리지도사반 2개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생 참여 열기가 높아 당초 계획인원 40명을 초과한 53명을 선발했다.

농업기술센터 총장기 교육과정인 농업인대학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0회, 100시간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병행할 예정이며 관련 선진 농가를 방문해 농업현장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지식과 지혜를 배운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